

탕수육·콜라 신품 고흥 섬으로 “드론 택배 왔어요”

군, 자유구역내 실증사업 추진 생활용품 2kg 8km 배송 성공

남해안 섬마을에 드론 택배를 이용한 음식과 의약품, 생활용품 수송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흥군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 유인 섬 장거리 물자수송 실증을 전남테크노파크, 참여 기업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인 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 섬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 택배 실증사업으로, 교통 여건이 불편한 소규모 유인 섬에 대해 의약품, 택배 등 20kg 급 물자 장거리 수송을 목표로 한다.

실증에 참여하는 (주)에스엠소프트와 마린로보틱스(주)는 드론 기체의 점검을 마치고,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에서 장거리 선착장까지 약 4km 거리의 바다를 택배 드론으로 횡단하는 실제 실



탕수육, 콜라 등 음식을 싣고 고흥군 섬으로 배달하는 드론 택배.

증에 착수했다.

(주)에스엠소프트는 4kg 무게의 물건을 싣고 드론으로 득량도 횡단과 실증구역 내 8km 거리를 배송하는 데 성공했고, 마린로보틱스(주)는 시범적으로 탕수육, 콜라 등 2kg 무게의 물건을 싣고 드론으로 득량도까지 배송하는 데 성공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2022년도까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에서 유인 섬 장거리 물자수송뿐만 아니라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 실증,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 분야에도 활발히 실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드론 기업 집적시설인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무인기 제조·생산·연구를 위한 무인항공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인허가 마무리 작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철강업계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현행 사내 하도급 체계 유지해야”

철강협회, 연구 결과 발표

국내 철강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사내 하도급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사내협력사 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한국철강협회는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사업조직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기업의 사내 하도급은 핵심 공정과 비핵심 공정을 원청과 협력사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독립적 기업으로서 원청과의 기술적 분업을 형성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사내 하도급은 운송과 같은 보조작업이나 비핵심 영역인 조립지원 분야만 담당하는 기술적 분업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컨베

이어 조립라인을 활용하는 산업의 사내 하도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련 차이를 NCS 직무분류 및 능력단위와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철강산업 열연공정 내 원청의 열간압연작업은 ‘재료’이나, 협력사의 천정크레인 운전은 ‘건설’로 구분되는 등 직무 대부분에서부터 원하청의 차이가 발생하며,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값도 원청 열간압연작업을 100으로 둘 때 협력업체는 58~76 사이에 분포해 원하청 근로자들의 숙련은 종류와 요건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강산업의 강국인 독일과 일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철강업계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하청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신규 제철소의 경우 하청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노동조건 격차는 직역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 하도급의 기본임금 수준은 약 70% 수준, 초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은 약 80% 수준으로 밝혀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신안군, 친환경 개체굴 양식 메카된다

종자 배양장 등 기반시설 준공

신안군이 친환경 개체굴 양식 산업화에 도전장을 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개체굴 배양장, 처리시설 등 전용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개체굴 양식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체굴 종자 배양장은 927㎡(300평) 규모로 개체굴 종자생산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준공한 개체굴 전용 처리저장시설은 344㎡(104평)로 개체굴 성패 출하를 위한 자동세척·선별·포장라인과 살균 및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를 갖췄다.

자은면 등 7개소에서 노출식 개체굴 테이블식 시범 양식 후 지난 8월부터 성패를 출하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정정 신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안1004’ 브랜드를 개발해 강남·대전 신세계백화점 VIP라운지와 레스토랑에 시범 납품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푸드마켓과 유명 오이스터 바에도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개체굴 전용 처리저장시설을 찾아 굴의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을 바탕으로 친환경개체굴 양식 산업화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양식시설을 규모화해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양식인증(ASC), 세계수산물품질관리회 인증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향해 신안 개체굴 가치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순호 구례군수, 29일부터 군민과 대화

김순호 구례군수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일간 8개 읍·면에서 군민과 대화에 나선다.

구례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1일 2개 면에서 군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군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군정발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서로 제작 및 배

부하면서 군민들이 알기 쉽게 읍·면 사업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읍·면 주요관심사, 애로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군수는 22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통해 군민과의 대화 및 소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군민과의 대화를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제285회 정례회 준비, 전남 자건거연맹회장 배 구례심진장 투어행사,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철저 등 구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꼼꼼한 군정활동 추진도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토란떡파이’ 지역 대표 먹거리 자리매김

곡성산 재료로 만든 맛있는 ‘토란떡파이’가 지역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란떡파이는 잡쌀과 토란의 소비 증대를 위해 곡성군이 자체 개발한 토란가공품으로, 밀가루와 합성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 디저트 제품이다.

토란이 함유돼 잘 굽지 않는 특성을 바탕으로 2년간의 심사를 거쳐 2021년 5월 제조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개발 당시 ‘토란파이’로 이름 지었으나 떡의 식감이 살아있는 파이라는 의미로 소비자에게 쉽게 어필하기 위해 ‘토란떡파이’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게 됐다.

토란떡파이는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곡성에서 나는 최고의 토란에 더해 견과류까지 토핑돼 있다. 적당한 단맛에 고소한 맛도 가지고 있어

누구나 만족스러워하는 간식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토란떡파이를 지역 대표 간식거리로 키우고 있으며, 1시간 1특화사업을 통해 포장재 개선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판매 증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1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곡성산 약자전거대회(MTB)에 토란떡파이를 참가자 450여명에게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토란가공 희망 농업인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토란떡파이 기술 전수를 해왔다.

지매가, 가랑다, 곡성다움, 아리불복떡방, 카페 소나무 등 5개 업체가 토란떡파이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중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화순 동북농협, 농가 벽지·장판 교체 봉사활동

화순 동북농협과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최근 화순군 동북면과 백야면 5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김정수 동북농협조합장을 비롯해 농협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이 참여했다.

<사진>

이들은 농가를 찾아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주변 청소를 함께했다.

지원을 받게된 농가 어르신은 “집이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들어 고칠 엄두를 못냈다”며 동북농협 덕분에 한 집이 새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실했다.

김정수 동북농협 조합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 농업인의 주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 줄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은정의 손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